

(사)한국출판경영자협회, 2006년 제1회 조찬세미나 개최
문화일보 이병규 사장, '나의 기업경영 체험'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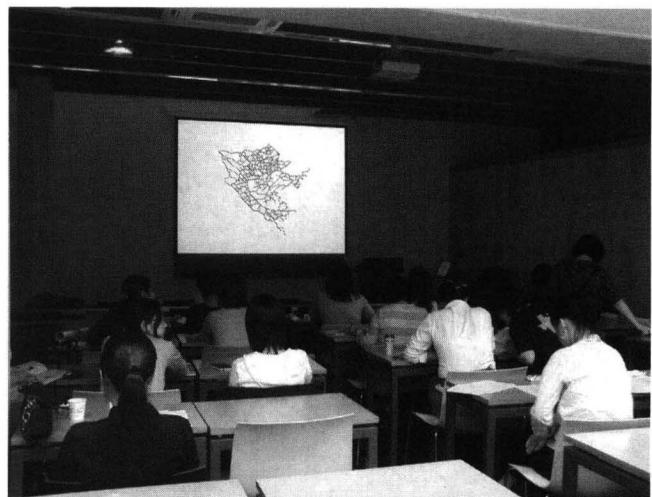


(사)한국출판경영자협회(회장 조은상)는 지난 2월 22일(수) 장충동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선 문화일보 이병규 사장이 그동안 현대그룹 전문 경영인으로 재직하며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한 '나의 기업 경영 체험' 제하의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 사장은 "본인이 운영하는 조직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조직원 모두를 이해와 설득으로 끌어가는 것"을 최고경영자의 덕목으로 꼽았다. 또한 "많은 대화와 스킨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10년 간 故 정주영 회장을 모시며 배운 경영노하우를 출판인들에게 전달했다.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는 "업종과 규모는 달라도 경영의 원칙은 하나"라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며,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7시부터 시작한 이 날 행사는 아침 식사 후 한 시간 여 동안 진행되는 강의로 마무리됐다. 이 자리에는 조은상 회장과 여원미디어 김동휘 대표, 시사 일본어사 엄호열 대표, 한국빠아제 박종관 대표, 대우출판 김영철 대표 등 50여 명의 출판경영인들이 참석했다.

한국출판인회의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한국출판인회의는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재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훈련된 신규인력을 양성해 출판계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 수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한 현장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재직근로자에게는 맞춤형 직무능력훈련을 실시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능력개발 기회를,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생산성 향상을, 국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추진방안

- 재직자 직무형상훈련 과정_연 3개 과정 개설
 - 정원 15명, 총 5일 15시간 / 월 평균 교육인원 7명
 - 신규인력 양성훈련 과정_연 1개 과정 개설
 - 교육내용: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형 실무 교육
 - 교육인원: 29명
 - 교육기간: 1월 9일 ~ 6월 30일(주5일 / 6교시 수업, 총 6개월 757시간)
 - 연 평균 교육인원 2,745명 / 월 평균 교육인원 229명(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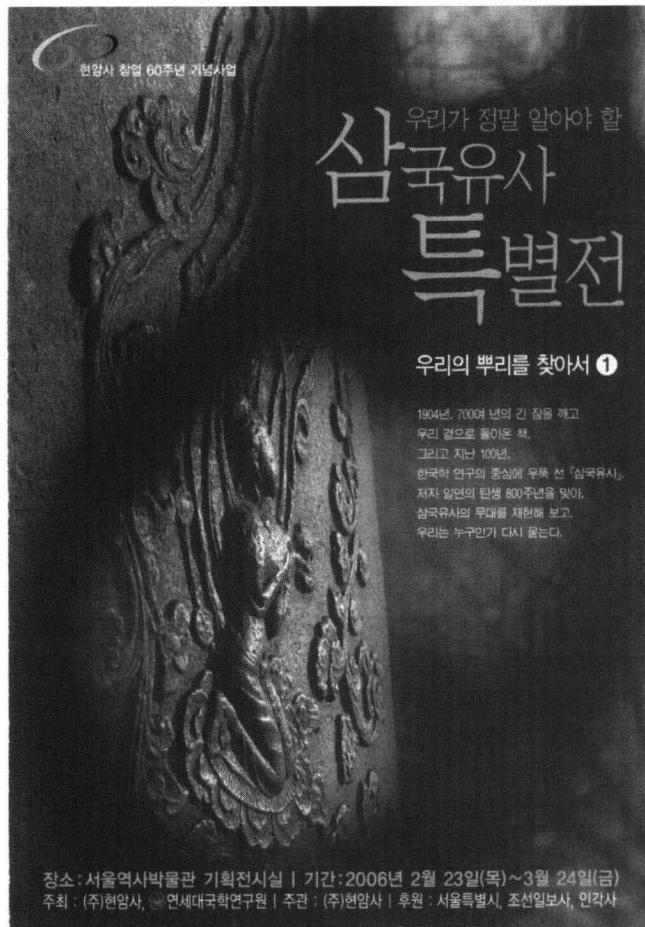
■ 운영 개요

- (1) 출판사 전체의 재직자 능력향상과 신규인원의 양성 훈련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공개적으로 전 출판계에 확대한다.
- (2) 컨소시엄 훈련은 출판의 산업체화와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훈련된 신규 인력의 양성과 재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둔다.
- (3) 컨소시엄 훈련과정은 기존의 정규 sbi 과정과는 별개의 훈련과정으로, 정규과정의 교재 및 교육내용을 활용하지만 향후 차별성을 두고 훈련내용을 구축한다.
- (4) 재직자 훈련과정의 경우 현장에서 필요한 주제들을 단기간 설정하여 워크숍 형태로 교육하며, 실험적인 과정의 설정과 검증을 통해 자료의 축적을 전제로 한다.
- (5) 우수한 신진 인력을 양성, 훈련하여 출판계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수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현암사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특별전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 기간: 2006년 2월 23일(목) ~ 3월 24일(금)
주최: (주)현암사, 연세대국학연구원 | 주관: (주)현암사 | 후원: 서울특별시, 조선일보사, 인각사

현암사는 창립 60주년과 함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백가지' 시리즈의 1차 완간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특별전'을 열고 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백가지' 시리즈를 기획하며 멀티 콘텐츠의 개념을 제시했던 현암사는 다시 창립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책을 읽는 방법을 여러 개념·종이책, 전자책 등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방법의 하나로 '전시회'를 택했다.

저자와 함께 책을 읽으며 토론하고 책을 완성하는, 다양한 매체를 끌어와 책에 담은 내용을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읽히려는 '+ mixed media(Book with new idea of mixed media)'라는 새로운 형식의 실험이다.

전시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장소_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 기간_ 2006년 2월 23일 ~ 3월 24일
- 주최_ (주)현암사, 연세대 국학연구원
- 주관_ (주)현암사

문화관광부

2006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26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2월 13일 확정,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업무보고에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대 정책목표, 26개 이행과제를 제시했으며, 특히 고용창출과 복합소비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2005년 7월 6일 강원도 용평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화강국(C-KOREA) 2010"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참고.

국립중앙도서관

문화강좌 '작가와 함께 여는 책 세상' 개강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태근)은 품격 있는 문화강좌 '작가와 함께 여는 책 세상'을 3월 9일 개강한다. 금년도에는 "책과 함께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문학·예술·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책에 관한 이야기와 작품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월 1회 작품배경 현장을 탐방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작가와 함께 여는 책 세상'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연간(10만 원), 반년간(6만 원)이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 수강신청_전화 (02)590-0556, 0558 / 메일 young93@nl.go.kr
- 계좌번호_ 외환은행 137-22-00726-8(예금주 국립중앙도서관)

문의_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최근보도자료

(사)한국문인협회

'제21회 마로니에 전국 청소년 백일장' 개최

(사)한국문인협회(이사장 신세훈)는 문학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를 순화하고 청소년들의 문학적 자질을 도모하여 장래 한국문학의 지평을 열어갈 예비문인을 배출하는 한편,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양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케 함을 목적으로 정례사업인 '제21회 마로니에 전국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한다. 백일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예선을 치르고 본선은 마로니에 공원 일원에서 별도로 치룬다. 대상은 전국의 중·고등학생이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예선 접수 및 응모_ 2006년 4월 1일 ~ 5월 7일
인터넷 www.pen.hansaem.com 접수
- 본선 진출자 발표_ 2006년 5월 13일 / 인터넷 www.pen.hansaem.com 공지
- 본선_ 2006년 5월 21일(일) 오전 9시부터 마로니에 공원(서울 종로구 통충동 옛 서울 대자리)
- 대상_ 중·고등부(예선참가자는 제한 없으나 본선은 예심을 통과한 자)
- 장르_ 시, 산문(2개 부문)
- 제목 게시_ 예선: 2006년 4월 1일 오전 10시, 인터넷 게시
본선: 2006년 5월 21일 백일장 당일
- 시상_ 각 부문 장원 1명(50만원)

차상 1명(20만원)
차하 1명(10만원)
첨방(중: 각 5명, 고: 각 10명)
특별상 4명(고등부 입상자는 대학 입학 문학 특기자 추천대상이 됨)

문의_ 한국문인협회 사무처

(02)744-8046~7 / 인터넷 www.pen.hansaem.com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발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김종심)는 '2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잃어버린 여행가방》 등 분야별 도서 10종을 선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문학, 역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평위원회를 두고, 독서 문화의 저변확대와 양서권장사업의 일환으로 매달 10종씩 '이달의 읽을 만한 책'을 선정하고 있다. 2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는 남도, 섬진강 등 국내뿐만 아니라 바티칸, 상해, 에티오피아, 티베트 등을 여행하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문학적 감상으로 쓴 기행산문집 《잃어버린 여행가방》, 22명의 인물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살펴보는 《현대사 인물들의 재구성》, 저출산, 고령화를 통한 한국의 미래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 《엑소더스 코리아》, 주요 경영학 서적들의 해석을 통해 기업의 행동과 전략을 설명한 《경영의 교양을 읽는다》 등이 선정됐다.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선정도서 및 추천사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웹진(<http://www.kpec.or.kr/webzine>)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선정도서

- 《잃어버린 여행가방》 박완서 지음 | 실천문화사 | 값 9,800원
- 《현대사 인물들의 재구성》 고지훈 지음 | 앱피 | 값 18,000원
- 《예수, 선을 말하다》 케네스 링 지음 | 진현종 옮김 | 지식의숲 | 값 22,000원
- 《모래의 제국》 로버트 W. 메리 지음 | 최원기 옮김 | 김영사 | 값 17,900원
- 《경영의 교양을 읽는다》(현대편) 이동현 지음 | 더난출판 | 값 30,000원
- 《엑소더스 코리아》 엄경영 지음 | 집시재 | 값 15,000원
- 《미래》 수전 그린필드 지음 | 전대호 옮김 | 지호 | 값 15,000원
- 《한국영화사 공부 1980~1997》 유지나 지음 | 이채 | 값 15,000원
- 《소로우와 에머슨의 대화》 하몬 스미스 지음 | 서보명 옮김 | 이례 | 값 12,000원
- 《일기 도서관》 박효미 지음 | 사계절 | 값 7,500원

한국출판학회

제8회 한·중출판학술회의 발제자 공모

한국출판학회는 제8회 한·중출판학술회의 발제자를 공모한다. 학술회의는 2006년 7월 7일(금) 10시에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며 발제 신청 요령은 아래 10개 개별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주제에 대한 요지(200자 원고지 10매 정도)를 작성하면 된다.

■ 주제

- 대주제_ 세계와 미래를 향한 출판산업의 전망과 비전
- 개별주제_
 - 1) 첨단 미디어와 출판의 위상
 - 2) 출판 콘텐츠 개발의 발전적 지향
 - 3) 출판학연구의 흐름과 지향과제
 - 4) 정부의 문화정책과 출판산업 육성

- 5) 중국에서의 출판개방 전략
- 6) 중국 출판산업의 변천과정과 향후의 비전
- 7) 번역출판의 현재와 장래
- 8) 디매체시대에 있어서의 저작권윤리
- 9) 출판교역의 현재와 장래
- 10) 잡지출판 현장과 발전적 대안

- 마감_ 2006년 3월 31일(금)까지 한국출판학회 사무국으로 전송 요망
- 발제자 확정_ 1) 발제자 수: 총 7인 이하(각 상이한 주제)
 - 2) 심의: 한국출판학회 회장단 회의
 - 3) 확정: 2006년 4월 7일(금)

문의_ 사무국 (02)712-9196 / 메일 kpss@kpss.or.kr

(사)한국만화가협회

〈2006년 한국만화작가 연감〉 제작 자료 접수 안내

(사)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국내 만화창작인력과 콘텐츠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만화자원의 산업적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2006년 한국만화작가연감 제작사업〉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다.

■ 사업목적

- 국내 만화의 인력과 콘텐츠 정보를 집적하여 만화 자원의 산업화 기반 마련
- 만화의 산업적 활용과 수요를 확대시켜 만화창작환경의 확대 조성과 만화창작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기반 마련
- 만화창작인력과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만화산업 진흥의 토대 마련

■ 사업내용

- 한국만화작가들에 대한 연감 제작
- 연감수록내용: 작가소개 / 대표작 소개 / 최신작 소개 / 작가 및 작품 이미지
- 한국만화작가들에 대한 작가 정보 및 작품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신청자격

- 한국만화작가 중 다음항에 1항 이상 충족하는 작가
- 민화잡지, 신문, 무기지, 온라인 연재 경력 1년 이상
- 단행본 출간 경력 2권 이상
- 국·내외 만화공모전 입상
- 동인지 수록 경력 6권 이상(최근 3년 이내)

■ 접수기간_ 2006년 2월 24일(금) ~ 4월 30일(일) 24:00까지

문의_ 한국만화가협회 사업운영팀 유택근 팀장

(02)757-8485~7 / tkyou7567@cartoon.or.kr

* 제작된 연감은 만화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각종 기관, 기업체 등에 배포될 것이며 이번 연감 제작을 통해 한국만화작가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산업적 연계와 창작 기반조성을 할 것이다.